

음주문화를 통한 〈翰林別曲〉의 일고찰

김 동 건*

1. 머리말
2. 座主門生宴의 전통과 〈한림별곡〉
 - 1) 唐과 高麗의 좌주문생연
 - 2) 詩文에 나타난 좌주문생연의 모습
3. 酒令을 통한 〈한림별곡〉의 이해
 - 1) 〈한림별곡〉에 적용된 주령과 行令 조건
 - 2) 酒令 이야기의 布置와 變改과정
 - 3) 가사의 정착과 '景 記 어머하니잇고'
4. 맺음말

1. 머리말

〈翰林別曲〉은 景幾體歌 최초의 작품이며 고려 고종 연간, 琴儀의 문생들에 의해 창작되고 향유된 노래로 이후 등장하는 다양한 경기체가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¹⁾ 〈한림별곡〉은 『樂學軌範』과 『樂章歌詞』에는 가사가 국한문으로, 『高麗史』〈樂志〉에는 한문과 이두로 실려 전해지고 있다.²⁾ 본고는 〈한림별곡〉이 텍스트로 정착되었던 상황에 주목하고 음주문화와 관련된 요소들을 확인함으로써 이 작품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再考하고자 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학연구센터 연구원.

1) 〈한림별곡〉이 창작된 시기와 향유자·향유 방식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2장 2절에서 논의했다.

2) 朴乙洙, 1997 『한국시가문학사』, 아세아문화사, 103면 참조.

〈한림별곡〉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양주동·김형규·장덕순·조윤제·김기동 등은 상층 지배계급의 향락적이고 호화로운 생활상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한편 해당 작가층을 정치권에서 추방당한 불우한 문인작가로 파악하여, 현실 도피적 퇴폐사상이 담겨있다고도 하였다.³⁾ 이명구·김선기·김학성·박성규·조동일⁴⁾ 등은 신흥 사대부들의 패기 넘치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의욕적이고 호탕한 기풍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외에 〈한림별곡〉의 형식 및 해석에 대한 연구, 그리고 창작 시기와 배경을 다룬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⁵⁾ 〈한림별곡〉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한 경우도 있으며,⁶⁾ 경기체가 작품 전체에 대한 거시적 조망도 이루어진 상황이다.⁷⁾

이처럼 다양한 시도가 있었기에 〈한림별곡〉은 어느 정도 정체가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한림별곡〉으로 인하여 무신집권기의 성격을 ‘퇴폐적’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退溪가 〈陶山十二曲跋〉에서 언급한 내용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한림별곡〉을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여 군자가 마땅히 숭상할 바 되지 못한다.”고⁸⁾ 평한 바 있다. 기존 논의

- 3) 양주동, 1947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230면; 김형규, 1955 『고가주석』, 백영사, 156-157면; 장덕순, 1960 『국문학개론』, 신구문화사, 122면; 김기동, 1964 『국문학개론』, 정연사, 103-104면; 조윤제, 1964 『국문학개론』, 정연사, 91면.
- 4) 이명구, 1964 「경기체가의 역사적 성격 고찰」 『대동문화연구』 1집; 김선기, 1983 「〈한림별곡〉의 작자와 창작연대에 관한 고찰」 『어문연구』 12집; 김학성, 1982 「경기체가」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조동일, 1976 「경기체가의 장르적 성격」 『학술원논문집』 15집, 247면; 박성규, 1984 「〈한림별곡〉 연구: 작가층의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2집; 박일용, 1987 「경기체가의 장르적 성격과 그 변화」 『한국학보』 봄호.
- 5) 조홍욱, 1998 「〈한림별곡〉의 형식적 특징」 『고시가연구』 5집; 김선기, 2000 「〈한림별곡〉 제8장의 해석적 고찰」 『인문학연구』 27권; 김선기, 2001 「〈한림별곡〉의 解釋的 考察」 『국어국문학』 47집; 여운필, 1992 「〈한림별곡〉의 창작배경 연구」 『수련어문논집』 19집; 여운필, 1997 「〈한림별곡〉의 창작시기 재론」 『수련어문논집』 23집.
- 6) 임기중 외, 1997 『景幾體歌 研究』, 태학사; 최용수, 2000 「〈한림별곡〉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민족어문학』 37집.
- 7) 박경주, 1996 『景幾體歌 研究』, 이회문화사; 박경우, 2005 『別曲類 詩歌의 題名慣習과 空間意識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李滉, 『退溪集』 卷43, 〈陶山十二曲跋〉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尙.”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진원, 1998 『한국 고전시가의 형상성』, 대

는 대부분 퇴계의 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데, 과연 그의 평가가 정당
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라의 향악 〈월전〉에 수반되었던 가곡은 또한 고려 시대의 〈한림별곡〉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주연에 쓰이는 악장을 대표하는 바로서 이른바 改令 著辭의 調格으로 쓰이는 가운데, 이로써 주령 유희를 베푸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던 듯하다. (중략) 우리의 〈한림별곡〉을 들어서 말하면, 제1장에 보이는 '당대의 우수한 문인·학사를 한 자리에 모아 시험을 치르게 하는 광경'과 제2장에 보이는 '역대의 우수한 經史·子集을 통틀어 주석까지 줄줄 외우는 광경'은 개령과 의령의 관계를 이루니, 뽑내고 으스스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改令 著辭의 영격을 좇아서 조소를 베푸는 한낱 희학일 뿐이지 여느 때와 같이 眞情을 읊자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8장에 이르러까지 바뀌지 않는 원칙이 되었다.⁹⁾

김태환은 최치원의 「鄉樂雜詠」을 다룬 논문에서 〈한림별곡〉이 酒舍와 관계되어 있으며 특히 改令 著辭의 舍格을 베푸는 놀이 광경을 나타낸 것임을 처음으로 지적하였다. 다만 해당 주장의 的否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되며 더 심화시켜 논의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가령 〈한림별곡〉이 좌주문생연 내의 주령놀이 통해 생겨난 것이라면 좌주문생연과 주령이 전래된 경위와 그 전개는 어떠했는지, 또한 〈한림별곡〉이 어떠한 좌주문생연을 배경으로 했으며 당시 실제로 적용된 주령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작품의 형성 과정과 '景 그 어떠하니잇고'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일어난다. 본고는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唐과 新羅에서 高麗로 이어진 음주문화의 전통을 조망하고 〈한림별곡〉과 유사한 酒舍를 제시·분석함으로써 그 정체를 재확인할 것이다.

동문화연구원, 7-11면 참조.

9) 김태환, 2007 「孤雲의 「鄉樂雜詠」 제 2수 〈月顛〉의 吟詠 對象과 그 性格」 『대동문화연구』 60집, 170면.

2. 座主門生宴의 전통과 〈한림별곡〉

1) 唐과 高麗의 좌주문생연

玉盞連樹霞液醕
瓊簪滿插露葩春
落終檀板猶教拍
舞罷榴裙更遣巡

옥 술잔에 연달아 신선의 술을 따르고,
경옥 비녀에 이슬 머금은 봄꽃을 가득 꽂았구나.
풍악의 한 단락이 끝났는데도 拍板 여전히 치고,
춤이 끝나도 석류 빛 치마 다시 돌도록 하네.¹⁰⁾

화려한 연회의 한 장면이다. 옥잔에 맛있는 술을 따라 마시고, 곱게 단장한 기녀들이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고 있다. 이 연회는 李奎報(1168~1241)가 71세 되던 해인 1238년(고종 25) 5월 11일에 열렸다. 네 차례에 걸쳐 급제한 이규보의 문생들이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는 것을 위로해 준 것이다. 이 날의 연회 장면은 學士 李百全·亞卿 李宗冑·諫議 李世華·妓生 御留歡 및 문생들과 창수한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¹⁾ 〈한림별곡〉이 좌주문생연을 배경으로 생성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지점이다. 작품의 이해를 위하여 과거제에 따른 座主門生宴의 기원과 연회의 종류를 확인하고자 한다.¹²⁾

신라시대 渡唐留學生들은 賓貢科를 통해 과거를 경험했다. 開城 2년(837)에 在唐留學生은 216인이었으며 開城 5년에 한번에 귀국한 유학생은 105인이나 되었다.¹³⁾ 빈공과에 급제한 경력은 신라에서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10)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卷4, 〈次韻其日座客李諫議和親字韻詩見寄〉 二首 “飲中招伴豈無人, 獨引金蘭宿昔親. 久挹清風深有素, 莫嫌明月至無因. 感他當代詩壇將, 作我門生宴席賓. 玉盞連樹霞液醕, 瓊簪滿插露葩春. 落終檀板猶教拍, 舞罷榴裙更遣巡. 進士盤筵遮箇足, 老夫情興一何新. 多君勉逐佯狂輩, 是日忘爲大諫臣. 續寄清詩論總緒, 悵然懷舊涕零頻.”

11) 이 날의 연회를 통해 남은 시가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4에 실려 있는데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준다. 〈贈四度門生及第〉, 〈坐客李學士李亞卿見和卽席復次韻〉, 〈卽席醉贈名妓御留歡〉, 〈次韻李學士和贈御留歡詩〉, 〈次韻其日座客李諫議和親字韻詩見寄〉 참조.

12) 고려시대 과거제에 대해서는 허흥식, 2005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박용운, 2008 『고려시대사』, 일지사 등을, 그리고 고려후기 좌주문생연과 관련된 詩文은 金承龍, 2001 『座主·門生을 통한 高麗後期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할 만하다.

13) 金世潤, 1982 「新羅下代の 渡唐留學生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37집, 150면 참조.

열어주었다.¹⁴⁾ 渡唐留學生들은 당의 수도 長安에 거처하며¹⁵⁾ 10년의 연한을 두고 공부했다. 대표적인 예로 崔致遠을 들 수 있는데 그는 12세(868년)에 商船을 타고 入唐했고 7년 만인 874년(18세, 咸通 15) 9월 禮部侍郎 知貢舉 裴瓚(?~?)이 주관한 빈공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했다. 門生인 최치원과 그를 선발한 座主 배찬은 최치원이 귀국할 때까지 깊은 교분을 나누었다.

과거시험에서 합격자가 발표되면 시험관과 합격자들이 모여 성대한 연회를 벌였다. 연회 장소는 시험위원장인 知貢舉의 집이나 그 근처에 있는 집을 빌렸는데 이를 期集院이라고 불렀다. 春闈宴 역시 진사시에 합격한 이를 위한 축하 연회로 王定保의 『唐摭言』 卷3에는 이러한 다양한 연회의 명칭이 열거되어 있다. 大相識·次相識·小相識·聞喜·櫻桃·月燈·打毬·牡丹·看仙牙·關宴 등인데, 그 중 關宴은 曲江宴이라고 불리는 최대 규모의 연회였다.¹⁶⁾ 최치원은 합격자 축하연에서 裴瓚을 비롯한 顧雲·歸仁澤·劉崇望·夏侯澤·蔣曙 등의 급제자 30인과 함께 다양한 연회를 즐겼다.¹⁷⁾

연초에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春闈에서 보내면, 백관이 春闈宴을 베풀고 난 뒤에야 끝이 났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음력 7월까지 연회를 연장하였다. 서울의 술시중 드는 기녀들은 教坊에 적을 두고 있었다. (중략) 기녀들은 모두 平康里에 살았는데 舉子, 새로 급제한 진사, 三司幕府는 조정의 관리로 있지 않아도, 그리고 궁중에서 숙직을 하는 신분이 아니어도 다 평강리에 갈 수가 있었다. 그들은 평강리에 가서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수레에서 내리면 산해진미가 갖추어져 있었다.¹⁸⁾

14) 唐末까지 빈공과 급제자는 58명, 五代梁唐 사이에는 32명이 급제했다.

15) 『譯註 崔致遠全集』 권2, 「法藏和尚傳 注」 “崔致遠曰, 愚於咸通十五年甲五春, 在西京.”

16) 王定保(唐), 『唐摭言』 卷3, 「讌名」 “大相識[主司在具慶], 次相識[主司在偏侍], 小相識[主司有兄弟], 聞喜[勅士宴], 櫻桃, 月燈, 打毬, 牡丹, 看佛牙[每人二千以上佛牙樓寶壽亭定水莊嚴皆有之寶壽量成佛牙用水精函子盛銀菩薩捧之然得一僧跪捧菩薩多是僧錄或首座方得捧之矣], 關讌[此最大宴亦謂之離筵備述于前矣].”

17) 이구의, 2005 『崔孤雲 文學 研究』, 아세아문화사, 52면 참조.

18) 孫棨, 『北里誌』, 「孫內翰北里誌序」 “自歲初等第於甲乙, 春闈開送, 天官氏設春闈宴, 然後離居矣. 近年延至仲夏. 京中飲妓, 籍屬教坊. (중략) 諸妓皆居平康里, 舉子·新及第進士·三司幕府但未通朝籍未直館殿者, 咸可就詣. 如不吝所費, 則下車水陸備矣.”

『北里志』는 孫棨(?~?)의 저술로 長安 북쪽 平康里[北里]의 기녀들에 대한 기록이다. 손계는 中和 4년(884)에 글의 서문을 지었으므로 그가 서술한 北리의 모습은 바로 최치원이 거닐었던 시기의 장안이었다. 과거시험은 보통 봄에 실시했는데 음력 7월까지 연회를 연장하였다면 거의 반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연회가 계속된 것이다. 급제자들은 이러한 일정을 모두 소화해야 했다.¹⁹⁾ 당시 일반적인 연회는 하루저녁에 18냥[4환]이 필요했는데 몇 달에 걸쳐 치러진 연회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다.

기생의 존재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裴瓚은 880년에도 知貢舉를 맡은 바 있는데 급제자였던 夏侯表中이 평강리의 기생 牙娘에게 얼굴을 심하게 긁힌 일이 있었다. 배찬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웃기도 했다.²⁰⁾ 과거급제자의 얼굴을 핥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기생의 위치를 짐작케 한다. 평강리의 기생은 단순히 술시중을 드는 존재가 아니었다. 예의와 용모가 뛰어나야 했던 것은 물론이고 노래와 시를 짓는 능력도 갖추어야 했다. 그들은 酒肴을 집행하던 錄事의 역할을 맡았는데 天水僊歌와 鄭舉舉가 주령을 잘 하기로 유명하여 인기를 끌었다.²¹⁾

885년 신라로 귀국한 최치원은 70세(927) 이후 종적을 감추었고, 약 30년 후 고려에서 과거제를 실시한다. 과거제는 光宗 958년 중국 後周에서 귀화한 雙冀가 건의한 것으로 唐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에 따라 과거합격자들에 대한 축하연 역시 유입되었으며 그 골자는 250여 년 후 〈한림별곡〉이 창작된 시기에도 유사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공거와 급제자가父子사이와 같다는 座主門生制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19) 金滢坤, 2008 「中晚唐五代座主門生与科場風气」 『教育与考試』 6期.

20) 孫棨, 『北里誌』, 「牙娘」 “翼日期集於師門, 同年多竊視之. 表中因厲聲曰: “昨日子女牙娘抓破澤顯.” 同年皆駭然. 裴公俛首而哂, 不能舉者久之.” 錄事는 술자리의 분위기를 가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다양한 능력을 요구받았다. 주령을 잘 한다는 것은 참여자의 성격 파악 및 적절한 주령 제시, 재치 있는 주령의 집행 등이 가능하다는 말로, 자세한 것은 3장에서 논의하였다.

21) 孫棨, 『北里誌』 “鄭舉舉者, 居曲中, 亦善令章, 嘗與絳真互爲席糾. 而充博非貌者, 但負流品. 巧談諧, 亦爲諸朝士所眷. 常有名賢釀宴, 辟數妓, 舉舉者預焉.

그런데 雙冀가 귀화한 후로 文士를 존중하여 은전과 예우가 너무 융숭하였습니다. 또한 변변치 못한 재주를 지닌 자들이 외람되게 관직에 진출하고 계급을 뛰어넘어 갑자기 승진되어 한 해 안에 바로 卿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불러 보고 이야기하니 이를 즐거움으로 삼아 정사를 게을리하고 연회와 놀음이 그치지 않았습니²²⁾.

과거제가 실시된 지 24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최승로는 982년에 時務 28조를 올리며 과거제에서 비롯된 당시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과거 합격자들은 좌주-문생 관계를父子 사이와 같이 여겨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했다. 최승로는 ‘연회와 놀음이 그치지 않은’ 당시의 연회 문화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시무 28조 중에서 중국의 제도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옳지 않고, 궁중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빈공과를 비롯한 唐의 음주문화를 접하지 못한 그에게는 좌주문생제의 폐단이 속출하는 상황에 쌍기가 벌이는 연회가 곱게 보일 리 없었다.

대개 과거를 맡은 試官이 잔치를 벌이는 것은 古例이다. 당나라 때에 楊嗣復이 그 아버지에게 稱壽한 예가 있고, 五代에 이르러 馬裔孫이 그 座主에게 잔치를 열어 위로한 예가 있다. 고려 때는 光宗이 과거를 설치한 이래로 門生과 座主의 예가 극도로 갖추어졌다. 과거를 맡은 시관을 學士라고도 칭하는데, 학사는 放榜을 하고 나면 公服을 갖추고 문생을 거느리고 자기의 아버지를 배알하는데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 왕이 특별히 음악을 하사하여 文風을 성대하게 하였다. 그 명칭을 學士宴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楊氏와 馬氏의 고사를 따른 것이다.²³⁾

당에서 유입된 좌주문생연은 고려시대에도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唐 楊嗣復의 사례와 같이 좌주의 부모를 모시고 祝壽를 하는 榮親會가 있었으며,²⁴⁾

22) 『高麗史節要』卷2, 成宗文懿大王 임오 원년(982) “及雙冀投化以來, 崇重文士, 恩禮過隆, 由是非才濫進, 不次驟遷, 未浹歲時, 便爲卿相, 或連宵引見, 或繼日延容, 以此圖歡, 怠於政事, 譙遊靡絕.”

23) 朴彭年, 『朴先生遺稿』, 〈益齋先生壽親詩卷序〉 “蓋典試者有宴, 古也. 在唐, 有楊嗣復稱壽於其親, 至五代, 馬裔孫宴慰其座主. 高麗自光廟設科以來, 門生座主之禮極備. 典試者稱學士, 學士既放榜, 具公服, 領門生, 謁其親若座主, 邀宴于家, 王特賜樂, 以貴文風. 名曰學士宴, 蓋因楊馬故事也.”

24) 李齊賢, 『益齋集』, 〈雞林府院君謚文忠李公墓誌銘〉 “庚申知密直司事, 賜端誠翊贊功臣之號, 知貢舉, 時稱得士, 公年蓋三十四. 文定辰韓外舅姑三座主皆無恙, 公舉觴稱壽, 一世歎之.”

五代의 馬裔孫과 같이 문생들이 致仕한 늙은 좌주를 위해 연회를 열어주기도 하였다.²⁵⁾ 放榜 이후 3일간 좌주의 주관으로 연회를 개최하는 관례가 있으며, 名簇會는 문생들의 이름을 써 넣은 簇子를 좌주에게 바치는 연회이다.²⁶⁾ 또한 충렬왕 13년(1287) 3월에는 왕에게 먼저 연회를 베풀기도 하였는데 이를 品呈이라고 하였다.²⁷⁾ 이 시기 전까지는 좌주가 주관하는 연회가 왕보다 먼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榜會는 同榜會와 같은 말로 매 시험에서 함께 합격한 동기들이 모여 갖는 연회이다.²⁸⁾ 龍頭會는 科擧에서 장원한 이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연회를 말하기도 하며 매 시험에서 壯元으로 급제한 사람만 모일 수 있는 연회를 가리키기도 한다.²⁹⁾

고려시대의 좌주문생연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모임의 목적은 좌주 및 그 부모의 장수를 빌거나 신규 급제자들을 축하하는 자리, 또는 벼슬에서 은퇴한 좌주를 위로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여러 성격을 함께 지닌 연회도 있었다. 이들이 결탁하여 권력을 독식하면서 여러 폐단이 일어나기도 했지만,³⁰⁾ 그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내내 좌주문생연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왔다.

25) 李穡, 『牧隱詩稿』 卷22 “門生盤果, 閔子復同榜諸公, 爲其恩門東亭, 將設於宴廳, 所以饗後門生也. 問其詳於僕, 僕所不知也, 故不能參, 以詩紀之.”

26) 李穡, 『牧隱詩稿』 卷31 “朴政堂稱僕曰宗伯, 其門生名簇會, 臨門相邀扶病與席, 入夜而歸, 明日代書以謝.”

27) 安鼎福, 『東史綱目』 卷12 “三月, 監試試員林貞杞享王. 貞杞享王, 珍膳花果, 豐侈無比. 故事掌試者, 放榜後宴賀客凡三日, 近年, 先試享王, 謂之品呈. 蓋以宴品, 先呈于王也. 遂爲常例.”

28) 沈守慶, 『遣閑雜錄』 “癸卯司馬同年, 每月輪設榜會. 壬辰夏, 遭亂分散. 甲午春還都下, 生存者只沈聽天鄭雙谷張松嶺三人而已.”

29) 李裕元, 『林下筆記』 卷12, 〈龍頭會〉 “舊例에 龍頭會에는 다른 손님들은 참석하지 못한다. 壯元 皇甫瓘이 이 모임을 열었는데 이때 金仁鏡이 第 2人을 한 처지여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30) 『高麗史節要』 卷28, 恭愍王 을사 14년(1365) “12월 신돈에게 벼슬을 내렸는데,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오래되니 재상 가운데 뜻에 맞지 않은 이가 많았으므로 생각하기를, 世臣 大族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 뻗어 서로 허물을 가리어 숨겨주고, 초야의 신진들은 실지의 감정을 감추고 일부러 겉으로 꾸며 명망을 취하니 그들이 貴顯이 되면 스스로 문벌이 한미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大族들과 인척을 맺어 처음의 의지를 다 버리고, 유생은 유약하여 강직한 이가 적으며, 또 門生·座主·同年의 칭호가 있어 당을 만들고 私情을 따르게 되니, 이 세 부류 사람은 모두 쓸 수 없는 것이다.”

2) 詩文에 나타난 좌주문생연의 모습

좌주문생연의 종류로 榮親會 · 名簇會 · 榜會 · 龍頭會 · 品呈 등의 성격은 확인하였으나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연회의 종류에 따라 장소 · 참여자 · 모임의 성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를 확인해보면 대략의 윤곽을 얻을 수 있다. 〈한림별곡〉의 창작 시기는 금의가 致仕한 이후, 고종 대에 열린 座主門生宴에 수반된 歌舞의 상황에서 창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종 3년(1216) 또는 고종 14년(1227)으로 대립되어 있다. 한편 14세기 중엽에서 말엽 사이에 창작되었으리라고 본 과격적인 견해도 있으나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여 믿기 어렵다.³¹⁾ 〈한림별곡〉이 연행된 연회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했는지도 분명치 않으며 현재까지도 〈한림별곡〉의 창작시기와 연회의 주체 및 장소 등에 대한 문제는 연구자들의 논란이 있다. 본 절에서는 〈한림별곡〉의 창작과 주체 등에 대한 요소들을 확정짓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한림별곡〉이 연행되었을 당시 연회의 정황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皇甫瓘 등 33명과 明經 6명, 恩賜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새로 급제한 사람들이 충헌을 사제에서 뵈니 충헌이 隨從하는 坊廂에게 銀瓶을 각각 하나씩 주고, 그 아들 瑀가 역시 은병을 주었다. 5월에 급제들이 梨坂宮에 나아가니 왕이 바깥 누각에 나와서 술과 과실을 내려주고 곧 여러 坊廂이 노래 부르고 관악기 부는 것을 구경하며, 황보관 등 7명에게 명하여 내시에 소속시켰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同知貢舉 琴儀는 충헌이 친애하는 사람이므로 이같이 후한 예로 대접하는 것이다.” 하였다.³²⁾

금의가 좌주의 자격으로 41명의 과거급제자를 선발했는데 당시 집권자인 최충헌에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으로 왕을 알현했다는 내용이다. 최씨 정권은 이전

31) 김동욱, 1965 「〈한림별곡〉의 성립연대」 『연세대학교80주년기념논문집』, 연세대학교; 성호경, 1989 「〈한림별곡〉의 창작시기 논변: 고려 고종대 창작설을 부정함」 『한국학보』 56집; 윤주필, 1992 「〈한림별곡〉의 창작시기 재론」 『수련어문논집』 23집; 여운필, 1997 앞의 논문.

32) 『高麗史節要』 卷14, 熙宗成孝大王 무진 4년(1208) 3월 “賜皇甫瓘等三十三人, 明經六人, 恩賜二人及第. 新及第等, 謁忠獻于私第, 忠獻, 贈隨從坊廂, 銀瓶各一事, 其子瑀, 亦贈銀瓶. 五月, 詣梨坂宮, 王, 出御外樓, 賜酒果, 仍觀各坊廂歌吹, 皇甫瓘等七人, 命屬內侍. 時人, 謂同知貢舉琴儀, 乃忠獻所昵, 故待以厚禮如此.”

의 무신정권과 다르게 문신을 중용하여 과거가 많이 시행되었다. 이는 문신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정권의 지지를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과거급제자들을 왕보다 최충헌에게 먼저 인사시켰다는 사실은 무신집권기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放榜 후에 좌주가 주관하는 연회가 3일 동안 개최되었으니,³³⁾ 위의 기사는 3일간의 연회를 마치고 금의와 급제자들이 최충헌과 왕을 알현하는 시점에 기록된 것이다. 무신정권이 끝난 이후 1287년부터 좌주가 개최하는 연회에 앞서 왕을 알현하는 品물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강화된 왕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3월에 최충헌을 찾아 갔으니 放榜한 이후 바로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에 임금을 찾아갔는데, 그 사이인 2개월 동안 연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글에서 후한 예로 대접했다는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금의 시절에 坊廂에게 은병을 하사한 것은, 그들이 음악을 담당한 관원들로서 연회에 필요한 음악을 연주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세현(1287~1367)의 경우에도 지공거로 임명되자 충선왕이 많은 하사품을 내려 학사연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³⁴⁾ 학사연에 대한 비용은 좌주가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이 비용을 부조하는데, “은총이 지극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一宴共歡三座主
四觴齋壽兩家尊
讓前讓後蟬冠擁
迎北迎南鳳蓋奔

한 차례 잔치 벌여 세 좌주와 함께 즐기니,
네 술잔 올려 두 댁 어른께 축수 올리네.
앞뒤로 길 물려 蟬冠 옹위하고,
남쪽과 북쪽에서 鳳蓋 달려오네.³⁵⁾

33) 安鼎福, 『東史綱目』 卷12 “三月, 監試試員林貞杞享王. 貞杞享王, 珍膳花果, 豐侈無比. 故事掌試者, 放榜後宴賀客凡三日, 近年, 先試享王, 謂之品呈. 蓋以宴品, 先呈于王也. 遂爲常例.”

34) 朴彭年 編, 『六先生遺稿』, 「朴先生遺稿」〈益齋先生壽親詩卷序〉 “是年, 以知貢舉, 馳傳還國, 忠宣賓與便蕃, 以資燕費, 寵已極矣. 及燕夕, 父母與三座主, 俱會一堂, 冠蓋雜還, 歌吹紛蒙, 垂髻戴白, 拭目聳觀, 萬口咨嗟, 以爲前古所未有也.”

35) 李齊賢, 『益齋集』, 「樸翁稗說」 後集2 “延祐 庚申年[1320]에 내가 외람되게 考試官이 되었을 적에 先君은 연세가 77이었고 大夫人은 연세가 70으로 모두 康寧하셨으며, 지금 菊齋 政丞權公[權溥]은 내가 登科할 적에 知貢舉였고, 同知貢舉는 悅軒 趙公[趙簡]이었으며, 成均試 때의 試官은 常軒 鄭公[鄭儻]이었는데 세 분 座主도 모두 건강하였었다. 이에 두

집안 어른과 座主의 座主를 초청하여 祝壽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친지들이 왔으며 벼슬에 있는 가족도 참여했다. 이제현은 자신의 좌주인 權溥의 사위가 되었기에 장모인 卞國大夫人도 참여하였다. 이처럼 榮親宴의 경우 公私의 구분이 모호하며 관련되는 친지들도 참여하는 자리이다. 이는 좌주를 아버지처럼 모셨으므로 그 웃어른에게도 인사드린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좌주와 급제자들은 점점 친족관계로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영친연의 경우 좌주의 아버지 및 좌주의 좌주에게 축수하는 것이 가장 큰 행사가 되고 여러 시문에도 해당 내용이 중점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초까지도 이어졌다.³⁶⁾

그런데 이처럼 좌주의 부모와 좌주의 좌주 및 여러 친지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한림별곡〉에 나타나는 ‘유흥적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어른들을 모신 상황에서 방탕한 분위기의 연회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듯하다.³⁷⁾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림별곡〉의 연회가 궁중에서, 그것도 집권자 최충헌이나 임금 앞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제1연의 화자가 琴儀의 문생이며 제1~3연의 내용이 科擧를 중심으로 하였음을 고려하면 해당 연회는 琴儀를 座長으로 모신 연회일 가능성이 높다.

〈한림별곡〉을 창작한 주제에 대한 중요한 단서는 ‘高宗代 翰林諸儒’라는 기록이다. 제1연의 화자는 “琴學士의 玉筭門生 위 늘조차 몇부니잇고?”라고 하였는데, 과거에 합격한 자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곧 〈한림별곡〉의 각 장을 여러 유생들이 말아서 돌아가며 불렀다는 것이다. 금의는 여러 차례 과거를

루 찾아뵈고서 招請하였는데, 나는 또 국제공의 사위였으므로 卞國大夫人의 肩輿도 왕림하니, 사람들이 科擧가 있는 이래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하였다. 尹樛軒[尹奕]이 축수하는 시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36)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卷5, 〈辛酉三榜壯元李中樞, 率三榜, 獻壽于恩門止齋, 大夫人李氏, 年踰七袞, 康強無恙, 有子若贊成學, 承旨摯, 中樞攀, 護軍摯, 司僕摯, 皆一時勳臣, 功名煥赫, 玉筭蘭蓀, 交映庭除, 眞一時盛事. 居正叨承末席, 不勝忭賀, 奉呈拙詩〉 “當時止老提衡日, 桃李爭榮滿國春, 依舊情鍾三榜在, 一時獻壽大夫人.”; “滿眼門生皆玉筭, 一時諸子盡金貂, 欲將盛事傳千載, 七袞高堂百福高.”; “天街小雨潤如膏, 紅杏花開碧柳線, 自幸葭莩參勝會, 一時盛事畫難消.”

37) 웃어른들은 잠시 연회에 참여하고 자리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짓기는 어렵다.

주관하였기에 많은 문생을 거느리고 있었다. 琴基昌은 <한림별곡> 제1연에 등장하는 金仁鏡·李奎報·李公老·陳漣가 금의의 문생이며 여타 인물도 문생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³⁸⁾ 제1연의 내용은 특정 문체에 뛰어난 선배들을 거론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名簇會를 떠올리게 한다. 거론된 인물들은 해당 문체에 뛰어나 당대에 이미 일종의 대명사와 같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회 장소는 보통 좌주의 집이나 다른 이의 집을 빌렸다. 榮親宴의 경우 좌주의 부모가 지방에 계셨다면 모든 문생이 내려가기도 했다. 丙申年(1236)에는 급제자들이 華筵을 열어 朴廷揆의 致政을 위로했는데 이때는 樞府 朴樞의 집을 빌렸다. 이규보는 그의 집을 깊숙한 골짜기에 있는 신선의 집[多喜開筵別占洞天仙宅]으로 표현하면서, 정원에 심어 놓은 화초와 기이한 경관이 아주 훌륭했다고 경탄하였다.³⁹⁾ 서거정 역시 恩門宴을 永順君 李漣의 집에서 개최했다고 밝힌 바 있다.⁴⁰⁾ 특히 좌주문생연이 궁중에서 진행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다만 고려에도 당나라의 平康里와 같이 기생이 있는 거리의 존재도 짐작되기에 그런 곳에서 소규모 연회가 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⁴¹⁾

竹城君이 문생 급제자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름을 적은 죽자를 座主에게 바쳤기 때문이었다. 두 분 侍中은 동쪽을 향하였고, 判三司 成政堂과 韓政堂 및 나는 북쪽에 있었고, 鄭南京과 閔密直과 安密直은 서쪽을 향하였고, 문생들은 동쪽 대청에 있었다. 妓樂이 교대로 울리는 가운데 聯句를 지으며 매우 즐겁게 노닐다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竹城風韻滿東方
玉笋森森映畫堂

竹城君의 풍도와 운치 우리나라에 가득한데,
玉笋같은 문생들 늘어서서 화려한 집 비추누나.

38) 琴基昌, 1976 「<한림별곡>에 관한 연구」 『한국어문논총』, 331면.

39)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10, <丙申年, 門生及第等設宴, 慰宗工朴尙書, 予於筵上作詞一首> “借朴樞府宅, 花草奇景最勝.”

40)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 卷14, <永順君宅, 設恩門宴> “登俊榮科古未聞, 泰平聖主重斯文. 門生同宴宗英宅, 座主親臨國老尊. 壽獻南山齊玉笋, 恩深北海豔金尊. 百年文物今全盛, 盛事驚傳萬古喧.”

41)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4, <次韻其日座客李諫議和親字韻詩見寄> “紫井坊中狂使酒[君所居洞名, 予嘗往醉其宅], 紅娘巷裏醉尋春[予昔與君醉訪一妓, 其妓名有紅字者, 古亦有紅娘].”

妙選青錢才德茂
高垂白絹姓名香
同年甚鮮知公老
入夜將歸發我狂
冢宰俱臨眞盛事
聖朝從古重文章

엄격히 선발된 靑錢으로 재주와 덕망 뛰어나,
높이 드리운 흰 비단에 성과 이름 향기롭네.
同年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니 공이 늙은 줄 알고,
밤 되어 돌아갈 적에 나의 광기 발동했네.
총재가 모두 자리했으니 참으로 성대한 일이니,
예로부터 聖朝에선 문장을 소중히 여겼다네.⁴²⁾

죽성군은 安宗源을 말하는데 목은과는 辛巳年(1341)의 進士試에 함께 입격한 인연을 갖고 있다. 시에서는 옥순처럼 늘어선 문생의 모습과 화려한 안중원의 집을 표현했다. 특히 “높이 드리운 흰 비단 위에 성과 이름 향기롭다.”는 구절을 통해 名簇會를 개최할 적에 비단에 합격자의 이름을 크게 쓰고 그것을 높이 내 걸어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색은 밤이 늦자 취흥이 극에 달하여 광기가 발동했다고까지 하였다.

위의 사례는 당시 연회의 배석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색이 설명한 대로 배석을 정리해보면 侍中 두 사람은 서쪽, 鄭南京, 閔密直, 安密直[安輯]과 문생들은 동쪽, 成政堂[成汝完], 韓政堂[韓脩] 및 李穡은 上席인 북쪽에 배석하였다. 남쪽이 비어 있는 ‘口’ 자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아마도 아래에는 악공들이 자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석한 사람의 옆자리에 기생이 대동하였는데 그 장면을 아래의 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규보가 취중에 기생 御留歡에게 지어준 것이다.

豈唯吾輩鬢成斑
紅粉年來換舊顏
到處逢渠猶綠髮
長春應爲御留歡

어찌 우리들의 귀밑머리만 반백이 되었겠나,
미인들도 요즘에는 옛 얼굴과 달라졌네.
도처에서 너를 만나매 늘 검은 머리니,
오랜 젊음은 응당 자네에게 머무나 보네.⁴³⁾

이규보가 名技 어류환에게 지어준 시다. “도처에서 너를 만났다.”는 말로, 웬만한 연회에는 늘 어류환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口’ 자 공

42) 李穡, 『牧隱詩稿』 卷29, 〈竹城君謙門生及第, 爲其呈名簇也, 兩侍中東面, 判三司成政堂, 韓政堂及穡在北, 鄭南京, 閔密直, 安密直西面, 門生在東廳, 妓樂交作, 聯句樂甚, 入夜而歸〉.

43)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4, 〈卽席醉贈名妓御留歡〉.

간 속에서 어떻게 광기가 발동할[入夜將歸發我狂] 정도로 놀았을까? 이를 위해서 唐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唐이 융성하자 주변국의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어 당의 문화와 혼합된다. 西域의 民間 풍습 및 佛教 樂舞의 유입은 酒令의 歌舞化를 촉진하였고 教坊을 통한 기생 중심의 음주문화를 이룬다.⁴⁴⁾ 최치원은 「鄉樂雜詠」에서 그 연회의 일면을 포착했다. 그 중에서 酒令은 당시 놀이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코드이다.

3. 酒令을 통한 〈한림별곡〉의 이해

1) 〈한림별곡〉에 적용된 주령과 行令 조건

好箇雨雲朝暮態
問吾桃李後先春
錦花枝重猶教插
玉醕盃深屢請巡

종구나 화기 넘치는 성대한 자리에,
선후의 내 문생들이 끼어 있네.
아름다운 꽃 그래도 꽃게 하고,
옥같이 좋은 술 담은 큰 잔 자주 돌리기를 청한다.⁴⁵⁾

戊戌年(1238) 5월 11일, 네 차례에 걸쳐 급제한 이규보의 문생들이 그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었다.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 한가히 지내는 것을 위로해주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시험에서 30~40명의 급제자가 배출되었으므로 적어도 120명 이상의 문생들이 함께한 대규모의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시는 이규보가 술이 거나해지자 자신의 문생을 돌아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巡’이라는 詩語를 통해 술을 마시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44) 王昆五, 1995 『中國酒令藝術』, 東方出版中心, 198면 참조.

45) 李奎報, 『東國李相國文集』, 〈贈四度門生及第〉“四年龍榜鑄門人, 較却胎分義等親. 老境還供非分樂, 此生應有未窮因. 招呼愛子參高會, 揀選交朋作上賓. 好箇雨雲朝暮態, 問吾桃李後先春. 錦花枝重猶教插, 玉醕盃深屢請巡. 興逸衰顏翻欲少, 感多清淚拭逾新. 不唯榮到懸車叟, 兼恐譁傳秉筆臣. 異日諸君當似此, 速提文柄放豐頻.”

술을 어떤 방식으로 마셨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는 관건이다. 唐에서는 술자리가 열리면 반드시 주령을 통해 즐겼다.⁴⁶⁾ 그 유행은 신라로 이어졌는데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14면체 목제주사위는 唐代 주령 문화가 新羅 상층사회에 수용되었던 증거이다.⁴⁷⁾ 고려에서도 술자리가 열리면 酒令이 행해졌으며 그것을 통해 취흥을 돋우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좌주문생연에서 행해진 놀이 방식이 바로 기생을 중심으로 한 주령이었다. 酒令은 술을 마시는 차례나 罰酒가 부여되는 규칙 등을 통칭한다.⁴⁸⁾ 주령은 참여자들의 흥을 돋우고 서로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다음 글을 주목할 만하다.

量으로 마시는 자는 큰 잔으로써 겨루고, 氣로 마시는 자는 六博과 주사위로써 겨루고, 趣로 마시는 자는 이야기로써 겨루고, 才로 마시는 자는 詩賦와 樂府로써 겨루고, 神으로 마시는 자는 그림[畫]으로써 겨루어야 하는데, 이것을 酒戰이라 한다.⁴⁹⁾

袁宏道는 〈觴政〉에서 酒戰의 다양한 방법을 언급했다. 주령의 종류는 크게 遊戲令·勝負令·文字令의 세 가지로 나뉜다. 遊戲令은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간단한 놀이로 벌주 마실 사람을 결정하는데 投壺나⁵⁰⁾ 六博·骨牌·주사위·산가지 등이 해당된다.⁵¹⁾ 勝負令은 각종 技藝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文字令은 글자놀이를 통해 機智와 才能을 겨루는데 학식이 있는 文人들이 즐겨 사용했다.

46) 蔡寬夫(北宋), 『酒令屬對』 “唐人飲酒必爲令, 以佐歡樂.”; 李晔光, 『芝峰類說』, 「文章部七」 〈對句〉 綱目註曰, 會飲而行酒令以佐歡, 唐末之俗也.

47) 김태환, 2006 「안압지 출토 목제 주사위 명문의 체계와 의미」 『정신문화연구』 104집.

48) 金仁淑, 2005 「酒令을 통해 본 唐代 음주문화」 『중국고대사연구』 13집.

49) 袁宏道(明), 『袁中郎全集』 卷14, 〈觴政〉 “戶飲者, 角觥兕. 氣飲者, 角六博局戲. 趣飲者, 角譚鋒. 才飲者, 角詩賦樂府. 神飲者, 角盡累. 是曰酒戰.”

50) 李裕元, 『林下筆記』 “조정에서 해마다 上巳[3월 3일]과 重陽[9월 9일]에 耆老宴을 普濟樓에서, 耆英會는 訓練院에서 베풀고 술과 풍악을 하사한다. (중략) 승지가 명을 받아 편을 가르고 투호 놀이를 시켰다. 진 쪽은 술잔을 이긴 편에 건냈으며, 이들이 서서 마실 때 樂章을 울렸고, 반드시 취한 다음에 끝냈다.”

51) 蔡壽, 『續東文選』 卷21, 〈遊松都錄〉 “서로 더불어 개천가 돌 위에 앉아서 희롱삼아 酒令을 만들어 罰을 표시한 산가지가 수북하도록 실컷 마시고 돌아왔다. 이날에는 仁希와 具公은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한림별곡〉의 창작자인 ‘翰林諸儒’들은 각자 능력을 자부하는 선발된 秀才들이었으므로 문자령이나 詩·賦의 창작을 통해 실력을 겨루었다.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이들만 모일 수 있는 龍頭會나 각종 연회에서는 作詩를 통해 실력을 가늠했는데, 그때 사용된 酒令 중 하나가 刻燭賦詩였다.⁵²⁾

문자령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四書와 관련된 문자령을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⁵³⁾ 우선 四書數目令·讀大學令·先生令·一品令을 들 수 있는데, 四書數目令은 ‘無信不立’·‘切磋琢磨’처럼 사전에 협의된 글자 수로 이루어진 구를 四書에서 뽑아 제시하면 된다. 글자 수는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讀大學令은 『大學』을 ‘自大學之道’에서 시작하여 ‘未之有也’까지 술자리에 참석 한 사람이 돌아가며 한 글자씩 외우는 주령이다. 이 역시 외울 글자 수를 조정하거나 대상을 『孟子』나 『論語』 등으로 바꿔서 진행할 수 있다. 先生令은 사서에서 ‘先生’이 들어간 구를 제시하는 것이며, 一品令은 ‘何謂善’·‘善哉問’과 같이 모든 글자에 ‘口’자가 들어간 구를 뽑으면 된다.

다음으로 四書連理令·四書賢否回還令·並頭離合字令·集古人名令·四書貫千字文令 등이 있다. 四書連理令은 ‘君子務本, 立而道生’·‘夫人不言, 言必有中’과 같이 두 구에서 上句의 끝 글자가 下句의 첫 글자와 같은 구절을 찾아야 한다. 四書賢否回還令은 사서에서 ‘君子泰而不驕, 小人驕而不泰’·‘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와 같이 句자와 소인이 대비되어있는 구절을 뽑는다. 並頭離合字令은 각 구의 글자를 모아 특정 글자를 만들어내야 하며, 集古人名令 역시 사서의 구절 속에 들어있는 글자를 합쳐 옛 사람의 이름을 만드는 것으로 이름을 사서 내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한정시켜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 四書貫千字文令은 ‘如四時之錯行-寒來暑往’·‘其養民也惠-愛育黎首’와 같이 사서 중에서 『千字文』의 主 旨와 관통되는 내용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52) 李穡, 『牧隱詩藁』 卷29, <(전략) 妓樂이 교대로 올리는 가운데 聯句를 지으며 매우 즐겁게 노닐다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袁宏道(明), 『袁中郎全集』 卷14, <觴政> “分題能賦者.”

53) 아래에서 인용된 酒令은 俞敦培(清), 『酒令叢鈔』 卷2, 「雅令」에서 뽑았다. 이 책은 중국에서 역대로 유행한 주령을 여러 문헌에서 확인하고 모으고 분류·정리한 것으로 清代에 印刊되었다.

앞 단락에서 제시한 주령은 四書を 외울 수 있더라도 술자리에서 곧바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서 제시한 주령은 더 어려워져 외운 내용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한발 더 나아가 다른 글의 내용과 함께 통합하여 암기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문자령은 글자 수를 조정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書籍·詩人 등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므로 변화가 무궁하다는 文字令 고유의 특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술자리의 참여자는 주령을 들으면 두 번 묻지 않고, 해당 조건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앞 사람의 行令에 맞추어 적절한 行令을 제시해야 별주를 피할 수 있다.⁵⁴⁾ 여기에는 즉석에서 대답하는 순발력·다양한 경진과 서적 및 시구를 외우고 이해하는 박식함·술자리의 상황에 맞게 재미있는 行令을 제시하는 재치 등이 요구된다. 주령을 잘 한다는 것은 이미 종합적인 능력을 검증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주령을 통해 그 사람의 학식과 능력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⁵⁵⁾ 〈한림별곡〉 제2장에서 역사서와 諸子百家 및 經書·詩集·文集 등의 주석까지 줄줄 외었다는 내용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옛날에 여러 명사들이 술자리에 모여 酒令을 내기를, 『詩經』의 한 구절을 이어 오언절구를 만들되 마지막 구는 반드시 藥 이름으로 하고 『시경』의 韻과 일치시키는 것을 규칙으로 하였다.⁵⁶⁾

위의 사례 역시 문자령의 한 종류다. 『詩經』은 4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경』에서 4개의 구절을 따온 후 한 글자씩 채워 5언 절구를 만든다. 『시경』과 韻이 맞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 한 글자는 藥 이름이어야 한다. 언뜻 듣기에도 쉽게 할 수 있는 酒令은 아니다. 이처럼 文字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었다. 그 중 著辭令은 주제에 맞는 단어들을 제시하거나 정해진 형식에 채워 넣는 방식의 주령이다. 著辭

54) 袁宏道(明), 『袁中郎全集』 卷14, 〈觴政〉 “無物爲令而不涉重者, 令行而四座踴躍飛動者, 聞令即解不再問者, 善雅諳者.”

55) 沈作喆(宋), 『寓簡』 卷10, 「古令」 “亦可以見其博聞巧發應機之敏.”

56) 미상, 『靑野談藪』.

습은 비교적 조건이 간단하여 여타 文字습에 비해 더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며 종류 또한 가장 많다. 이제 <한림별곡>의 주제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著辭습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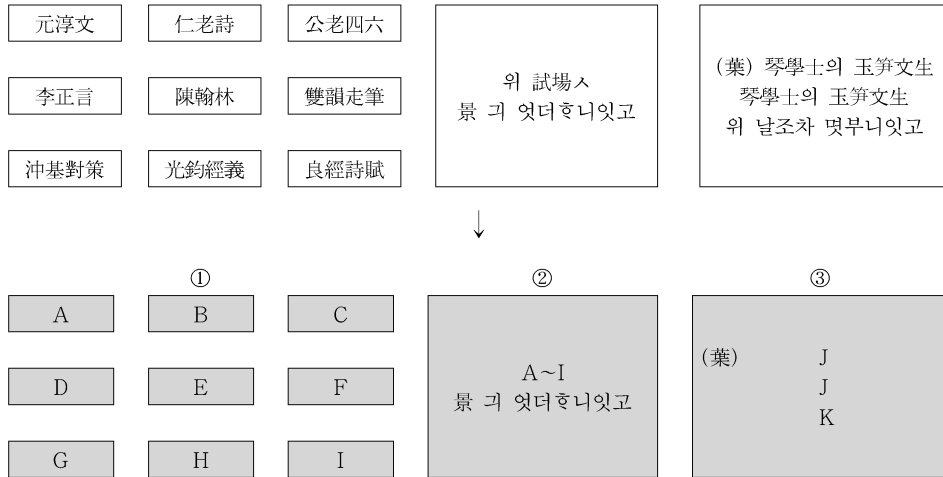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著辭습은 사람의 이름이나 사물의 명칭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 먼저 集古人名습·人名습·古人姓名回還습·姓名繁簡습·人名疊韻습·姓名相類습·人名皆姓습 등이 있다. 集古人名습은 四書의 구절 2개를 들어 옛 사람의 이름을 만들되, 그 이름이 四書에 있어야 한다. 人名습은 이름과 字의 글자 수를 사전에 정해두고 그 조건에 맞는 이름을 제시하는 주령이다. 古人姓名回還습은 같은 글자가 중복된 이름을 뽑아야 하고, 姓名繁簡습은 획이 복잡하거나 간단한 글자의 이름, 人名疊韻습은 운자가 맞는 이름, 姓名相類습은 田甲·李季와 같이 글자가 비슷한 이름, 人名皆姓습은 이름이 모두 성으로 쓰이는 글자로 이루어진 것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集美人名습·花名人事습·解語花습·藥名습·樂器名습도 있는데, 集美人名습은 연회의 참여자가 각자 유명한 美人의 이름을 하나씩 써내고 제비로 뽑는다. 그리고 唐詩에서 미인의 이름을 이루는 글자가 들어있는 구절을 제시하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⁵⁷⁾ 花名人事습은 꽃 이름과 사람의 일을 '사전에 협의된 형식'에 따라 배치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한 解語花습은 木蘭·虞美人·芍藥과 같이 꽃 이름이 美人의 이름과 같은 것을 뽑고, 藥名습과 樂器名습은 각각 약 이름과 악기 이름을 나열하면 된다.

이처럼 著辭습은 사람이나 꽃의 이름, 약과 악기의 이름 등 명칭을 중심으로 한다. 문자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하므로 활용 가능한 경우의 수는 훨씬 더 많다. 해당 내용을 <한림별곡>에 빗대어 보면, 곧 과거·서적·서예·술·꽃·음악·기생과 같이 관련된 주제를 일관성 있게 모아서 '사전에 협의된 형식'에 맞춰 제시한 酒습 놀이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림별곡>의 창작자들은 주령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연회의 광경을 나타내었으며 그 흥취를 묘사했다.

57) 俞敦培(清), 『酒令叢鈔』卷2, 「雅令」“各書美人名爲闈依次拈之. 得者集唐詩兩句將美人名分嵌句內詞氣連屬. 佳者各賀一杯, 不佳者罰一杯, 不成者罰雙杯.”

〈표 1〉 〈한림별곡〉 제1연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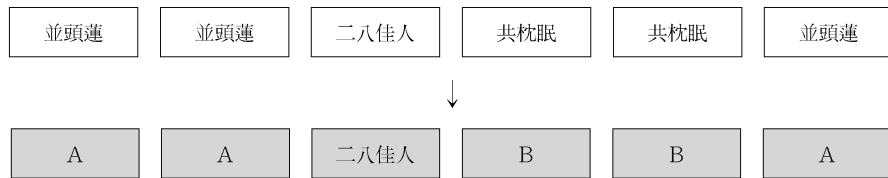
〈표 1〉은 〈한림별곡〉 제1연의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각 연은 크게 ①~③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①에서는 A~I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제에 맞게 제시해야 한다. 관련된 단어 9개를 내용에 맞게 채워 넣는다. ②에서는 A~I에 관련된 주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景 古 엇더하니잇고'로 마무리한다. ③에서는 앞 내용에 대한 반전·흥취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J와 K의 내용을 채우되 J는 2회 반복되도록 한다. 이것이 〈한림별곡〉의 '사전에 협의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2~8연 역시 위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적절한 주제와 소재만 주어지면 끊임없이 재생산이 가능하다.⁵⁸⁾

酒舍에는 이처럼 사전에 협의된 형식이 많다. 이는 술자리의 참여자에 따라 주령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재미를 배가하기 위한 수단이며, 여기에는 참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明末의 문장가 馮夢龍(1575~1645)의 주령 이야기가 전하는데 이야기 속에서 행한 주령이 花名人事回文令이다. 소년들과 함께 주령놀이를 시작한 풍몽룡은 “月月紅, 月月紅, 二八佳人, 經水通, 經水通, 月月紅.”이라는 行令

58) 酒舍는 填詞와 같이 이미 형성된 악곡에 韻을 맞추어 詞語를 채우는 창작 방식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한림별곡〉에서는 韻을 따지지 않았으므로 詞와 관계 짓기 어렵다. 또한 좌주문생연의 참여자는 많을 경우 100명 이상의 대규모로서 이처럼 많은 인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령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을 통해 소년들을 탄복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풍몽룡을 제외한 참여자 모두가 벌주를 석 잔씩 들이켰다. 그리고 술자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收斂을 더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포복절도하게 하였다.⁵⁹⁾ 여러 사람들이 석 잔의 벌주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풍몽룡의 行斂이 그만큼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역시 ‘사전에 협의된 형식’이 존재한다. 그들이 행한 酒斂의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花名人事回文斂의 구조



花名人事回文斂은 꽃 이름과 사람의 일을 연관되게 배치하여 제시하되 回文이 되도록 만든다. A는 꽃 이름, B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채워 넣되 이야기가 서로 통해야 한다. 또한 ‘二八佳人’이라는 구가 세 번째에 위치한다. 풍몽룡의 행령은 ‘월경이 시작되네[經水通]’, ‘베개를 함께하고 잔다네[共枕眠]’와 같이 민망한 性的 표현이, 앞서 제시한 꽃 이름인 ‘月月紅[달마다 붉네]’, ‘並頭蓮[머리를 함께한 연꽃]’과⁶⁰⁾ 묘하게 의미가 통하여 사람들의 웃음을 터뜨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우리의 打斂에도 이처럼 사전에 협의된 형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짜타령(바리가)’이다.⁶¹⁾

59) 褚人獲(淸), 『堅瓠集』 “馮猶龍先生偶與諸少年會飲, 少年作一令, 欲以難之. 令要花名人事回文曰: “十姐妹, 十姐妹, 二八佳人, 多姐妹, 多姐妹, 十姐妹” 過益曰: “佛見笑, 佛見笑, 二八佳人, 開口笑, 開口笑, 佛見笑.” 令至猶龍曰: “月月紅, 月月紅, 二八佳人, 經水通, 經水通, 月月紅.” 諸少年爲自斃, 俱三大觥, 無以收令. 猶龍曰: “學生代收之.” 曰: “並頭蓮, 並頭蓮, 二八佳人, 共枕眠, 共枕眠, 並頭蓮.” 諸少年佩服.”

60) 月月紅은 月季花를 말하며 장미과로 홍자색 또는 연분홍색의 꽃을 피운다. 並頭蓮은 한 줄기에 두 송이의 꽃이 나란히 피는 연꽃으로 그 때문에 금실이 좋은 부부를 가리키게 되었다.

61) 打斂은 行斂과 같은 말로, ‘주령을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성기련, 2012 「〈짜타령〉의 가장 방식과 전승양상 연구」 『한국음악연구』 52집에서 〈바리가〉가 전해져 오다가 19세기 중엽 이후 〈짜타령〉으로 바뀌어 불리며 창우집단의 주요 레퍼토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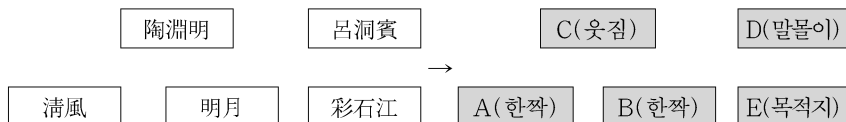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어려운 주령에 비하면 〈한림별곡〉에 적용된 주령은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림별곡〉은 8연으로 나뉘고 후렴구가 있으며 3음보의 율격과 3·3·4조의 음수율을 지니고 있다는 등의 형태적 분석이 주로 진행되었다. 음보 및 음수율을 맞추는 것도 詩歌의 특성상 없을 수 없는 요소이겠지만 〈한림별곡〉의 경우에는 그보다 ①·②·③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형식'에 맞추어 연관되는 명칭을 채우되 주제를 일관성 있게 나열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그것은 당시 유행했던 음주문화를 배경으로 하였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한림별곡〉에서 葉에 해당되는 ③부분이 주령놀이의 과정으로 볼 때 상당히 어색하다. ③부분은 주령놀이와는 별개로 〈한림별곡〉이 가사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짐작된다. 더 의아한 문제는 〈한림별곡〉은 창작과 동시에 노래 가사로 정착된 작품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좌주문생연에서 진행된 酒榖놀이가 기록으로 남겨지고 가사로 정착되는 과정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酒榖 이야기의 布置와 變改과정

(가) 松江 鄭澈과 西厓 柳成龍이 교외로 손님을 전송할 때 마침 白沙 李恒福을 비롯한 沈一松[沈喜壽], 李月沙[李廷龜] 등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술이 거나해 지자 모두들 소리에 대한 풍류의 격을 각자 논하기 시작했다. 먼저 송강이,
“맑은 밤, 밝은 달에 다락 위로 구름 지나는 소리가 제일 좋겠지.”
하자, 一松이,

고로 〈몽유가〉 중에서 바리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풍으로 흔씩 짓고 명월로 씩을 지어, 도연명 웃짐치고 여동빈 말 몰여라, 채석강 도라드니 이 아니 뽕일 손야? 일광노 흔씩인데 두목지로 씩을 지어 張鸞으로 웃짐치고 소동파로 말 몰여라 옥경으로 올나가니 이 아니 훈바린가(정재호 외 편, 1992 『주해 악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바리가〉는 마치 말에 양쪽 바리[짐]를 싣고 웃짐을 엮은 후 말몰이꾼을 붙이고 유람하는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이 바리가의 협의된 형식이다. 작품의 구조를 도식화 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滿山紅葉인데, 바람 앞에 원숭이 우는 소리가 絶好로다.”
 라고 했다. 그러자 西厓가,
 “새벽 창가 줄음이 밀리는데 술독에 술 거르는 소리가 제일이다.”
 라고 하자, 月沙가,
 “山間草堂에 才子의 시 읊는 소리가 아름답지.”
 라고 하였다. 白沙가 웃으면서,
 “여러분의 소리를 칭찬하는 말이 모두 좋기는 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듣기 좋기로는 동방화촉 좋은 밤에 佳人이 치마끈 푸는 소리가 어떻소?”
 라고 하자 모두 소리 내어 웃었다.⁶²⁾

(나) 고려 말의 가장 이름난 사람 삼봉 정도전, 도은 이숭인, 양촌 권근 세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심심하니,
 “자, 제일 즐거운 일을 찾는다면 어떤 일이 될까?”
 이런 말들이 났었다. 삼봉은 먼저,
 “첫눈이 흠날리는 날은 말 한 필을 집어타고서 가없는 별판을 달린다면 그 위에 갈 즐거움이 없을 거야.”
 다음은 도은이,
 “그도 좋기야 하겠지만, 깊은 산 고요한 절간 방에 중과 함께 들어앉아 향을 피우면서 차나 마시고 책이나 보고 하면 그 위에 좋을 것이 없을 것이다.”
 양촌은 한참 있더니,
 “난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따뜻한 방안에 드러누워서 책을 보고 있을 적에 그림같이 고운 미인 하나가, 옆에서 바느질하고 있다가 가끔 손을 멈추고는 맛난 밤을 구워서 내 입에 날콤날콤 넣어준다면 내겐 그 이상 갈 낙이 없을 것 같군.”
 두 사람이 크게 웃으면서,
 “하긴 자네의 낙을 따를 도리가 없겠네.”⁶³⁾

위 이야기의 대화는 『論語』에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 하고 싶은 바를 묻고 그 格을 따졌던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⁶⁴⁾ 김정석은 다음의 두 자료가 <한림별곡>을 이해하는 데 많은 示唆을 한다고 하였다. 그는 위의 두 이야기가 관념적인 의미의 성격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정취가 인간에게 한층 큰 만족감을 준다고 보았다. (가)에서는 소리에 대한 풍류의 격을 ‘구름이 지나는 소리-원숭이 우는 소리-술 거르는 소리-시 읊는 소리-아름다운 여인이 치마끈 푸는 소리’

62) 정명기 편, 1987 『한국야담자료집성』 권1, 「한거잡록」, 594-595면 참조.

63) 이주홍, 1978 『한국인의 웃음』, <하긴 자네의 낙을>, 성문각, 205면 참조.

64) 『論語』 「先進」 25장.

로 차츰 인간의 소리에 접근한다. 또한 (나)에서는 호연지기를 펼친 기상이나 그윽한 정취를 추구하는 것 보다 생활 자체에서 오는 남녀의 낭만적인 분위기가 더 의미 있음을 말하였다.⁶⁵⁾

역사적 상황이나 인물 구성 등이 다르겠지만 어느 시대나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情景은 비슷할 것이다. 위의 이야기에서는 각자가 지닌 풍류의 멋을 나름대로 개진하였는데 그 기질과 품격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들이 모두 남녀의 정회를 드러낸 정경으로 귀결되었으니,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술자리에서만 허용되고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특성이다. (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실제로 한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가상의 술자리를 만들어낸 것이다.⁶⁶⁾ (나) 역시 가상의 모임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료로서가 아니라, 저 자리가 실제의 술자리였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醉氣로 인한 실수도 있겠고 참여자 각자가 지닌 능력의 편차도 존재하므로 격에 맞지 않는 발언이 나올 수 있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罰酒가 부여된다.

따라서 위 이야기는 주령놀이의 한 장면이 기록으로 남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있어 '(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말하고 그 격을 논하는 것이나, '(나)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술자리에서 있을 법한 주제이다. 위 대화의 틀을 기준으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가장 우스운 소리', '가장 무서운 일', '가장 괴로운 일' 등 무엇을 대입해도 모두 酒筵이 된다. 이는 袁宏道가 〈觴政〉에서 “趣로 마시는 자는 이야기로 겨룬다.”고⁶⁷⁾ 한 것으로 일종의 勝負筵에 해당된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야기의 布置'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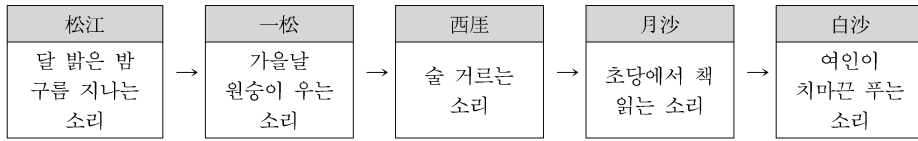
65) 김정석, 1992 「〈翰林別曲〉의 風流的 性格 再考」 『계명어문학』 7집, 8-10면 참조.

66) 다섯 사람 중에서 이정귀의 나이가 가장 적는데 정철과는 30년, 유성룡과는 20년의 나이차가 있다. 도저히 같은 술자리에서 性的 농담을 주고받을 나이차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정귀가 27세(1590)에 급제한 이후, 다섯 사람이 만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기는 4년 남짓이다. 그러나 그 시기에 정철은 유배되었다가 1593년에 사망하였고, 심희수는 일본 사신을 맞이하러 지방으로 떠났다. 1592년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이정귀는 선조를 호종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섯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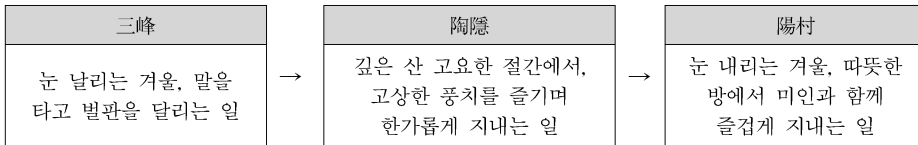
67) 袁宏道(明), 『袁中郎全集』 卷14, 〈觴政〉 “戶飲者, 角觥兕. 氣飲者, 角六博局戲. 趣飲者, 角譚鋒. 才飲者, 角詩賦樂府. 神飲者, 角盡累. 是曰酒戰.”

〈표 3〉 이야기의 布置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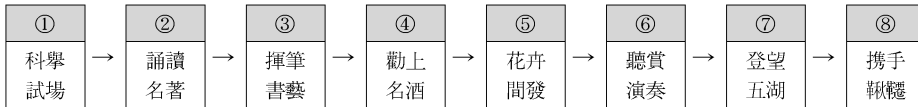
〈소리에 대한 풍류의 격〉



〈제일 즐거운 일〉



〈한림별곡〉



위 표는 처음에 제시한 두 가지 이야기와 〈한림별곡〉의 단락을 구분지어 본 것이다. 〈한림별곡〉을 著辭畵에서 비롯된 작품으로 보면, 창작자인 ‘한림제유’들이 각자 한 장씩 맡아 돌림노래처럼 불렀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음담패설로 흐른다는 점이다.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그 내용이 반드시 성적인 소재가 아니더라도 가장 재미있고 파격적인 行畵으로 이야기를 끝맺는 것은 현존하는 주령 이야기의 일정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 하나를 더 살펴보자.

(다) 어떤 선비 다섯 사람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술 마시는 규칙을 정하기를,
 “한 글자에 세 가지 음이 있고, 意味가 醞醞하고 단 것을 말한 사람이 술을 마신다.”
 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行·行·行(행·항·행), 옛물에 사탕을 먹는다.”
 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이,
 “說·說·說(설·열·세), 熊掌에 벌꿀을 합했다.”
 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이,
 “樂·樂·樂(악·낙·요), 순한 술에 우유를 섞었다.”

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이,

“重·重·重(중·중·중),⁶⁸⁾ 향기로운 閨秀의 방에 雲雨가 무르녹는다.”

라고 하였다. 마지막 사람이 고심하더니,

“巳·己·巳(이·기·사), 흰 쌀을 가지고 시장에 간다.”

라고 하였다. 넷째 사람이,

“巳·己·巳(이·기·사)는 한 글자가 아니고, 흰 쌀은 훈훈히 취하거나 단 것도 아니다.”

라고 하니, 그 사람이 말하였다.

“석자는 획이 같고 흰쌀을 가지고 시장에 가면 사탕도 여기 있고 운우도 무르녹을 수 있으니 어찌 훈훈하고 달콤하지 않겠는가?”⁶⁹⁾

시장에만 가면 사탕부터 雲雨까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발언은 당시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흥미로운 지점이다. 그런데 어설폰 行습을 제시한 다섯째 사람은 罰酒를 마셨을까? 이야기 (가)·(나)에서 모두 ‘모두 소리 내어 웃었다’·‘두 사람이 크게 웃으면서’와 같이 좌중의 웃음으로 끝맺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酒습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무엇이든 한바탕 웃음을 선사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다.⁷⁰⁾ 위의 이야기 (다)에서도 뒷부분이 끝났기에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섯째 사람의 재치 있고 파격적인 해석을 통해 폭소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현존하는 주령 관련 이야기를 살펴본 결과 모두 비슷한 패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馮夢龍의 사례도 포함되는데, 좌중의 폭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다소 민망한 내용이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한림별곡〉의 제8장에서도 같은 의미의 웃음이 나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한림

68) 重은 중국어 발음이 zhòng, chóng, tóng 의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의미가 다르다.

69) 權鼈, 『海東雜錄』, 〈徐居正〉조 “有儒士, 五人會飲, 作酒令曰: “一字而三音, 意味醺甘者飲之.” 一人曰: “行行行, 錫水喫砂糖.” 一人曰: “說說說, 熊掌合清蜜.” 一人曰: “樂樂樂, 醇酒和醞酪.” 一人曰: “重重重, 香閨雲雨濃.” 最後一人苦吟曰: “巳巳巳, 白粒持歸市.” 四人曰: “巳巳巳非一字, 白粒非醺甘.” 其人曰: “三字畫同, 白粒持歸市, 則砂糖在是, 雲雨亦可濃也. 豈不醺甘乎?”

70) 朴趾源,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내 어릴 때 하인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술 먹는 것을 보았는데, 그 行습 중에, “자기 집을 지나치면서도 들어가 본 적 없이 나이 일흔에 生男하고 보니, 등이 땀에 젖었구려.”라는 구절이 있었다. 내 성미가 본디 웃음을 참지 못하므로 사흘 동안 허리가 시큰거렸다.”

별곡)의 제8장에서 호두나무와 쥐엄나무는 각각 남녀를 나타내며 그네놀이는 남녀의 性愛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金善祺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⁷¹⁾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이야기 (가)~(다)의 주령 이야기와 〈한림별곡〉은 동일한 패턴을 이루게 된다. 주령의 규칙상 좌중의 폭소를 유발한 行승이 나오면 行令者를 제외한 모든 이가 한 잔씩 가득 부어 마셔야 하며 이를 통해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게 된다. 이처럼 국면이 전환되는 마지막 부분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14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衆人打鼻가 나온 것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14면체 주사위는 반드시 별주 3잔이 앞에 놓여있을 때에만 던질 수 있었는데,⁷²⁾ 주사위를 던져서 衆人打鼻가 나오면 주사위를 던진 사람은 별주가 면제되고 座中の 모든 이가 한잔씩 가득 부어 마셔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고 국면을 전환하는 주령구이다.

이처럼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재미있고 파격적인 行승을 ‘收令’이라고 한다.⁷³⁾ 하지만 실제 술자리에서 가장 재미있는 행령이 매번 마지막에 나올 리도 없거니와 (가)~(다)의 이야기와 같이 아무도 별주를 마시지 않고 무사통과하는 일은 더욱 없을 것이다.⁷⁴⁾ 그렇다면 현전하는 酒令 이야기가 변개 및 재배치되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에서의 모임이 실제가 아닌 가상이라는 점도 그 근거가 된다. 따라서 술자리 장면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개 과정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재미가 없는 行令 및 犯令은 처음부터 삭제된다.⁷⁵⁾ 둘째, 행령의 순서가 실제의 정황과 다르더라도 술자리의 취흥을 복돋

71) 金善祺, 2000 「〈한림별곡〉 제8장의 해석적 고찰」 『인문학연구』 27집, 49면 참조.

72) 안압지의 14면체 주사위를 반드시 별주 석 잔이 찼을 때 던질 수 있다는 단서는 ‘三盞一去’에 있다. 석 잔 중에서 한 잔을 던지는 것이다. 나머지 주령구 13개 역시 석 잔의 별주를 전제했을 경우에 가장 큰 반전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성립될 수 있다.

73) 俞敦培(清), 『酒令叢鈔』卷1, 「古令」, “猶龍曰: “月月紅, 月月紅, 二八佳人經水通, 經水通, 月月紅.” 諸少年爲自斃, 俱三大觥, 收令亦無.”

74) 酒令이 앞 사람의 行令을 받아서 더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므로 술자리의 분위기가 상승되는 방향으로 서술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별주를 마시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정제된 웃음의 패턴은 자연스럽게 않으며, 뒷사람이 앞사람의 行令을 받아내고 또 받아내더라도 더 재미있게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다.

75) 해당 犯令이 (다)와 같이 삼입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재미와 반전이 필요하다.

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재배치된다. 셋째, 마지막의 收束은 가장 재미있고 파격적인 行畵으로 자리한다.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앞에서 살핀 주령 이야기들은 모두 인위적인 변개 양상을 잘 나타내는 ‘布置’를 하고 있다. 주령 이야기의 패턴이 동일하므로 〈한림별곡〉 역시 그러한 삭제 및 재배치 과정을 거친 작품임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한림별곡〉의 주제는 과거제가 도입된 이후 좌주문생연 내에서 진행된 주령놀이의 핵심적 주제를 종합·정리하고 재배치한 것일 수 있다. 주령 이야기들과 〈한림별곡〉의 패턴이 같다는 우연은, 삭제와 재배치 및 收束의 선정과 같은 일정한 변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주령 이야기들과 〈한림별곡〉이 술자리의 분위기를 ‘漸入佳境’ 식으로 상승시켜 한바탕 폭소로 마무리하는 布置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살펴 본 주령들을 매개로 과거제가 실시된 이후 250여 년 동안의 좌주문생연에서 어떠한 주제의 주령놀이가 진행되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詩·賦·四六文·對策 등 각종 문체에 뛰어난 선배들의 이름을 외우는 주령을 통해 문생 사이의 位階를 확인시켰다. 이는 朝廷에서 소용되는 다양한 實務에 뛰어난 적임자를 자신의 선배 중에서 설정하고, 그의 文體를 배우고자 하는 후배들의 典範이 되었을 것이다.⁷⁶⁾ 또한 四書三經과 같은 經典 및 여러 서적을 이용한 文字畵을 통해 신입 문생들의 실력을 검증했으며, 글씨를 써서 누가 나은지 품평하고 음악을 듣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서로의 鑑識眼을 겨루기도 했을 것이다. 醉氣가 더 오르면 어떤 술이 입에 맞는지 어떤 기생이 더 예쁜지와 같은 淫談悖說로 주령놀이를 진행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술자리의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야 그야말로 “광기가 발동하였다[入夜將歸發我狂]”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한림별곡〉에 속한 다양한 주제들은 좌주문생연에서 酒畵을 통해 그 재미를 배가하며 진행되었고, 그 내용은 다시 著辭畵의 형식을 빌려 〈한림별곡〉에 집약되었던 것이다.

76) 이 부분은 군에서 이등병에게 선임병의 관등성명과 보직 등을 외우게 하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한림별곡〉 1연은 문생의 이름을 적은 족자를 좌주에게 올리는 名簇會와 관련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가사의 정착과 ‘景 記 어떠하니잇고’

모임의 목적과 참여자의 지위에 따라 술자리의 성격은 크게 달라진다. 반드시 罰酒라고 할 수 없는데, 술이 부족하면 술을 마시는 것이 賞이 되기 때문이다.⁷⁷⁾ 酒令도 종류가 다양하고 수준차가 크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과 어려운 주령을 함께할 수는 없다. 또한 참여자들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錄事는 이처럼 다양한 변수 속에서 적절한 판단을 통해 취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⁷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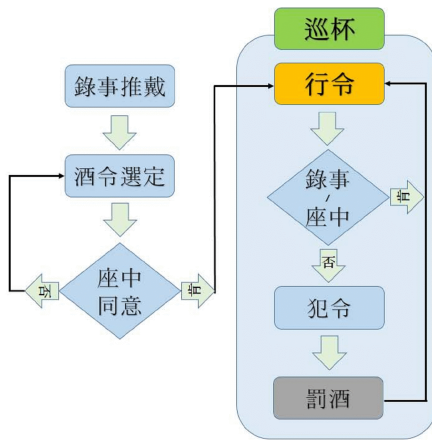
주령의 진행방식은 녹사를 추대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좌중의 동의하에 주령을 선정한다. 여기에는 〈한림별곡〉과 같이 ‘동의된 형식’을 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순배대로 참여자가 각자의 好惡와 취향에 따른 行令을 제시하고 녹사 및 좌중에게 ‘그것이 어떠한지’의 여부를 묻는다. 여기에는 좌중의 인정과 폭소를 유발하는 재치 있는 행령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없는 자는 애초부터 그 술자리에 낄 수가 없고 어떻게 한자리 차지했더라도 계속된 별주가 기다리게 된다. 만약 犯令하게 되면 녹사와 좌중은 별주의 부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巡杯이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14면체 주사위는 일종의 ‘폐자부활전’과 같은 기회를 주는 물건으로, 반드시 罰酒 석 잔이 앞에 놓여있을 때에야 던질 기회를 얻었다. 이것을 던져서 별주를 피하거나 덜어낼 수 있다. 다만 잘못되면 별주에 부가되는 벌칙까지 받을 수 있다.⁷⁹⁾ 14가지의 주령구는 正-反의 두 종류 또는 녹사와 좌중의 판단 개입 여부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는데 이 주사위를 통해 녹사와 좌중의

77) 『戰國策』卷9, 「齊二」“楚有祠者, 祠祭賜其舍人卮酒. 舍人相謂曰: “數人飲之不足, 一人飲之有餘, 請畫地爲蛇, 先成者飲酒.” 一人蛇先成, 引酒且飲之, 乃左手持卮, 右手畫蛇曰: “吾能爲之足.” 未成, 一人之蛇成, 奪其卮曰: “蛇固無足, 子安能爲之足.” 遂飲其酒, 爲蛇足者, 終亡其酒.”

78) 孫榮, 『北里誌』, 「鄭舉舉」“今左諫王致君、右貂鄭禮臣、夕拜孫文府、小天趙爲山、皆在席. 時禮臣初入內庭, 矜誇不已. 致君已下, 倦不能對, 甚減歡情. 舉舉知之, 乃下籌指禮臣曰: “學士語太多. 翰林學士, 雖甚貴甚美, 亦在人耳. 至如李隴、劉允承、雍章, 亦嘗爲之, 又豈能增其聲價耶?” 致君已下, 皆躍起拜之, 喜不自勝致. 禮臣因引滿自飲, 更不復有言. 於是極歡, 至暮而罷.”

79) 김태환, 2006 앞의 논문.



〈표 4〉 주령놀이의 순서

판단을 두 차례 거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⁸⁰⁾ 이 모두 반전을 이용하여 술자리의 취흥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 신라시대에 이미 주령놀이가 크게 유행하였고 나름의 규칙을 통해 즐거웠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림별곡〉의 술자리에도 酒令을 관장하는 錄事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녹사는 주령을 잘 아는 기생이 담당했는데 御留歡이라는 기생이 술자리마

다 와 있었다는 이규보의 발언은 선불리 넘길 수 없는 단서이다.

녹사의 존재와 함께 주목할 것은 〈표 3〉 이야기의 布置 분석에서 ‘→’ 부분이다. 주령놀이는 상대방이 제시한 이야기[行令]를 듣고 그것이 적절한지 판단한 후에 다음 사람에게 巡杯가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만약 누군가 얼토당토않은 行令을 하였다면 그 사람의 行令은 주령 이야기의 변개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삭제되었을 것이다. 犯令者는 물론 그에 따른 罰酒를 들이켜야 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 부분은 녹사와 좌중이 行令에 대한 별주의 부여를 판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景 記 어떠하니잇고’에 대하여, 각자가 제시한 主題 및 景概가 얼마나 좋겠느냐는 의미로 파악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주령놀이의 과정 속에 있었다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어야 할 듯하다. 곧 ‘자신의 行令이 어떠하냐?’고 錄事 및 座中에게 묻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앞서 살핀 야담에 나오는 주령 이야기와도 맥락이 통하게 된다. 반응이 부정적이면 罰酒를 마시고, 긍정적이면 통과하여 다음 순배로 넘어간다. 앞의 이야기들에서는 모두 행령에 성공하여 罰酒를 마시지 않은 경우만 기록으로 남았기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웠다.⁸¹⁾

80) 홍현성, 2014 『雁鴨池 출토 목제 주사위 놀이 방식 연구』 『한국문화』 66집.

81) 酒令 놀이의 순서로 볼 때 〈표 1〉 〈한림별곡〉 제1연의 구조에서 葉에 해당되는 ③부분

그 때문에 <표 3> 이야기의 布置 분석에서 ‘→’ 부분을 ‘景 기 어떠하니잇고’로 전환하여 읽어도 어색하지 않다. <바리가>에서도 한 바리를 만들어내고 나서 “이 아니 景일손야?”, “이 아니 흔바린가?”라고 확인하는데, 각 단락마다 行畧을 제대로 완성했는지의 여부를 상대방[座中]에게 묻고 있다. ‘景 기 어떠하니잇고 □’에서도 느낌표[!] 보다 물음표[?]가 오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 그에 따라 <한림별곡>이 문인들의 자부심을 나타내거나 특정 대상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기존의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또한 ‘景 기 어떠하니잇고’의 역할은 巡杯 사이에서 行畧의 검증이라는 본질적인 역할로 볼 때 안압지 14면체 주사위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주령놀이의 순서로 볼 때 <한림별곡>의 ‘景 기 어떠하니잇고’는 錄事를 비롯한 좌중에게 자신의 行畧이 적합한지 여부를 묻는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景幾體歌 작품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한 요소이나 그 基底에는 주령을 기반으로 한 음주문화가 있었다. 문인들은 당시 유행했던 주령놀이의 방식을 다양한 작품에 활용했던 것이 아닐까? ‘景 기 어떠하니잇고’가 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後代의 경기체가에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儒生들이 처음 科擧에 오르면 四館에 나누어 속하게 하고 許參·免新의 예절이 있으며 <翰林別曲>을 本館의 모임에 노래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풍속입니다.⁸²⁾

1475년 8월 예문관에서 신임 관리가 된 후배들을 위한 연회가 베풀어졌다. 이날 어찌나 즐겁게 놀았는지 풍악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그러자 가뭇으로 禁酒令이 내려진 시절에 지나치지 않았느냐는 핀잔이 있었다. 한림의 수장인 安僉生은 임금 앞에 待罪하였으나, 성종은 예부터 내려오는 풍습임을 인정하며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다. 급제자가 처음으로 관직을 얻어 舊官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을 許參宴이라 하고, 허참연 후 15일 뒤에 中日宴을 베풀다. 허참 후 50일이 지나면 免新宴을 베풀었다.⁸³⁾ 허참이나 면신을 위한 잔치에는 광대들과 기녀

은 어색해 보인다. ③부분은 <한림별곡>이 노래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82) 『成宗實錄』卷58, 6년(1475) 8월 4일 3번째 기사 “儒生初登科第, 分屬四館, 有許參·免新之禮, <翰林別曲>歌於本館之會, 古風也.”

들이 반드시 따랐고 밤새도록 술과 妓樂의 풍류를 즐겼는데 새벽녘 잔치를 끝낼 때 참석자들은 〈翰林別曲〉을 불렀다.⁸⁴⁾

〈한림별곡〉은 창작과 동시에 더 이상 주령의 방편으로 활용되지 않고 ‘노래’로만 불리게 되었다. 주령놀이의 내용을 노래로 부르면 그저 정형화된 가사를 반복하는 것일 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酒舍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 〈한림별곡〉이 翰林諸儒들에 의해 창작되어 가사로 정착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전해졌다는 점은 작품의 창작과 동시에 주령과의 밀접한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주령의 전통은 어디로 흘러갔는가?

“중국의 觴政엔 반드시 묘한 방법이 있을 터인데, 어제 오늘 이를 밤을 여럿이 모여 마셔도 酒舍를 내지 않음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배갈부가 대답하였다.

“이는 옛날의 상정을 말씀함이죠. 지금은 하찮은 運轉手나 金庫直이 따위도 다 아는 일이어서 그리 韻致 있는 일로 치질 않습니다.”⁸⁵⁾

박지원이 淸으로 연행 갔을 때 裴褐夫라는 중국인을 만나 나눈 대화이다. 배갈부는 酒舍에 대하여 하층민들도 잘 아는 하찮은 놀이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린다. 지식인층이 즐기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주령의 유행과 흐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한림별곡〉이 노래 가사로 정착된 시절부터 문인들은 주령놀이보다는 作詩를 즐기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령의 유행과 흐름에 대한 문제는 후속 논문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83) 『慵齋叢話』의 기사를 통해 허참과 면신의 의미를 알 수 있다. 許參은 새로 出仕하는 관원이 구관원에게 비로소 相從을 허락된다는 뜻으로 열렸다. 또한 免新은 허참례 이후 행하는데 이 뒤로부터 비로소 同席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모든 잔치는 극진한 성찬에 많은 기생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84) 成倪, 『慵齋叢話』 “위로 각각 차례로 잔에 술을 부어 돌리고 차례대로 일어나 춤추며 혼자 추면 벌주를 먹었다. 새벽이 되어 상관장이 주석에서 일어나면 모든 사람은 박수하며 흔들고 춤추며 〈翰林別曲〉을 부르니 (후략).”

85) 朴趾源, 『熱河日記』 “余曰: “中國觴政, 心爲妙令, 今兩夜羣飲, 不爲酒令何也?” 裴褐夫曰: “此中古觴政也. 今時看車掌櫃的, 都會了. 非爲風流雅事也.””

4. 맺음말

唐代에는 西域의 民間 풍습과 佛敎 樂舞 및 중국 대륙의 문화가 혼합되면서 敎坊의 기생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음주문화를 발달시키는 동시에 酒舍의 歌舞化가 진행되었다. 신라 귀족 사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연회에 활용하였는데 그 증거가 안압지에서 출토된 14면체 주사위다. <한림별곡>의 배경인 좌주문생연은 고려 광종조에 실시된 과거제에서 비롯되었다. 좌주문생연은 榮親會·名簇會·榜會·龍頭會·品呈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연회에서는 <한림별곡>에 속한 주제들을 활용한 주령놀이를 즐기며 취흥을 배가시켰다.

<한림별곡>은 抒情이 아닌 多人에 의한 창작으로 돌림노래와 같은 유층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酒舍 중에서도 文字舍에 속하며 '사전에 협의된 형식'에 맞추어 연관되는 주제의 '명칭'을 채우되 일관성 있게 나열하는 著辭舍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그 주제의 배치는 일정한 변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한림별곡>의 구조와 野談 등에 실려 있는 주령 이야기들이 동일한 布置를 보이고 있음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림별곡>이 250여 년 동안 지속된 좌주문생연에서 펼쳐진 다양한 주령놀이들의 주제가 정리·재배치되어 노랫말로 완성된 작품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림별곡>은 가사의 정착과 함께 酒舍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후대로 갈수록 그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한림별곡>은 좌주문생연에서 펼쳐졌던 다양한 주령놀이의 片鱗을 조합하여 著辭舍의 형식으로 구성해낸 總和이지만 가사로 정착된 노래일 뿐, 주령놀이 그 자체는 아니다.

'경 그 어떠하니잇고'가 후대의 景幾體歌 작품에 유행하면서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면면히 이어져온 음주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자리의 분위기, 곧 '醉興'을 느낄 수 있어야 작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통해 <한림별곡> 뿐만 아니라 여타 경기체가 작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酒舍를 통해 작품의 호흥과 연회의 장면,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파생되는 <한림별곡>과 주령의 변화과정, 경기체가 장르 전반의 구조와 주령의

관계, 그리고 주령의 유행과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등의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음주문화(飲酒文化), 〈한림별곡(翰林別曲)〉, 좌주문생연(座主門生宴), 주령(酒令), 문자령(文字令)

투고일(2015. 1. 6), 심사시작일(2015. 1. 20), 심사완료일(2015. 2. 6)

〈Abstract〉

A study on the <Hanrim Byeolgok> through drinking culture in the Goryeo dynasty

Kim Dong-geon *

In Tang dynasty, popular customs from the countries bordering on western China, Buddhism music and dances, and cultures from China are combined to develop luxurious drinking culture that centralized by courtesans. Also the combination of culture and customs makes drinking rules to be more with music and dancing. The Silla nobility accept the new drinking rules and apply them to their feasts. It can be proved with the 14-sided dice from Anapji Pond. Jwajumunsaengyeon(座主門生宴: the background of <Hanrim Byeolgok>), is based on gwageo, 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during the Gwangjong era in Goryeo dynasty. It has various types such as Youngchinhoei(榮親會), Myungjokhoei(名簇會), Banghoei(榜會), Yongdoohoei(龍頭會), Poomjung(品呈), and so on. In those feasts, the civil official in Goryeo dynasty enjoyed the games with drinking rules using the themes of <Hanrim Byeolgok> and heightened the conviviality.

<Hanrim Byeolgok> is produced by many people and has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like a troll. It belongs to ‘words characteristic’, one of drinking rules and borrows the way(Chaksaryeng: 著辭令) that fills in the names of related topics with prior consultation and consistently arranges them.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 arrangement of the subject seems to be changed consistently and the stories of drinking rules in the structure and historical stories of <Hanrim Byeolgok> are confirmed to follow the same arrangement. Therefore,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Hanrim Byeolgok> is completed with re-arrangement of subjects of various drinking games in Jwajumunsaengyeon in 250 years. But it is hard to find its identification in future generation due to the settlement of lyrics and severance of drinking rules. To conclude, <Hanrim Byeolgok> is the

* Researcher,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ollection of various drinking game pieces in Jwajumunsaengyeon made by the Chaksaryeng way and the song with lyrics but it is difficult to call a drinking game itself.

Key Words : Drinking culture[飲酒文化], <Hanrim Byeolgok[翰林別曲]>, feasts of mentors and mentees promotion examination system[座主門生宴], drinking rules[酒令], words characteristic in drinking custom[文字令]